

# “카프카의 벌레가 나라면?” 광주 시민들이 낭독한 ‘변신’



지난 20일 오후 5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시민 배우 9명이 출연한 ‘낭독극 카프카의 변신’이 열렸다.

## 광주문화재단·푸른 연극마을 ‘퍼블릭 프로그램’ 시민 배우 9명 참여, 4개월 간 매주 낭독극 연습 “잊지 못할 무대 행복한 경험”...이달 말 2기 모집

20일 오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시민 배우 9명의 목소리와 음악만이 울려 퍼졌다.

고요한 무대 위, 파란 조명 아래 나란히 앉아 대본을 보며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린 주인공의 내면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가족과의 갈등을 목소리만으로 전달하는 9명의 시민 배우들의 모습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앉아서 그저 대본만 읽는 지루한 공연을 생각했다면 오해다. 낭독극은 시각적 요소보다는 청각적 요소, 즉 배우의 대사에 집중하는 연극이다. 낭독극은 비주얼적 요소를 줄이는 대신 대사에 집중함으로써 색다른 감동을 전한다. 무대 위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함 대신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 객석의 상상력을 유도해 더 크고 깊은 감동과 여운을 전해준다.

시민들이 직접 배우가 돼 문학작품을 입체적으로 읽어주는 퍼블릭 프로그램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최종발표회 ‘낭독극’이 지난 20일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펼쳐졌다.

이번 ‘낭독극’은 ‘푸른 연극마을’이 광주문화재단 ‘2017 공연장상주단체운영사업 퍼블릭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최종 결과물이다.

공연에 출연하는 시민 배우는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11명을 모집했으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주 월요일, 총 15회에 교육을 받았다. 시민 배우들은 빛고을시민문화관 연습실에 모여 이당금·송한울 강사와 함께 호흡 및 발성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무대에 오른 배우들은 극에 완전히 몰입했다. 아마추어답지 않게 대사 하나하나를 완벽히 소화했다.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는 부분에서는 마치 시민 배우가 그레고르로 변신해 그 고통을 생생히 전달했다.

시민 배우들의 목소리와 대사만으로도 그레고르를 방 안에 가두고 숨기며 천연덕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아버지와 가족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인 작품은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받는 독일작가 카프카(1883~1924)의 작품 ‘변신’이다.

카프카는 현대 사회 속 인간의 존재와 소외, 허무를 다룬 소설가다. 그는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상황 설정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끊임없이 추구한 실존주의 소설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심판’, ‘변신’, ‘시골의사’ 등을 썼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가족을 위해 상점의 판매원으로 고달픈 생활을 반복하던 평범한 세일즈맨이다. 그는 어

느 날 아침, 자신의 몸이 이상하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자신의 몸이 어느 사이에 무수한 다리를 지닌 한 마리 커다란 벌레로 변신해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모습에 어머니는 절도하고, 아버지는 그를 방안으로 쫓아 버리고 문을 닫았다.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갈등을 겪던 그는 고독과 불안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죽고만다. 인간 존재에 대해 고찰해보고 가족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김도균(38)씨는 “지난 5월부터 시민연극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긴장감과 설렘을 가득 안고 시작했다. 카프카의 단편작을 접하면서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며 “낭독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이 서투르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한울(27)씨는 “위대한 작가의 문장을 소리 내어 읽 밖으로 낼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행복한 경험이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이 시대의 또 다른 카프카들, 유쾌한 시민 배우 분들과 함께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어서 영광이다”며 “시민연극을 통해서 문학이라는 세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고 전했다.

푸른마을 두 번째 퍼블릭프로그램은 첫 번째와 같은 낭독극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민 배우 모집은 8월 말부터 진행되며 광주문화재단과 빛고을 시민문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43.

전은재기자 e16621@kwangju.co.kr



킹 아이소바(아프리카)

## 이번 주말 광주는 월드뮤직의 중심

### 25~26일 7개국 18개팀 참가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여름 음악축제인 ‘2017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25일과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일원에서 열린다.

가나를 비롯한 7개국 18개팀이 참가하는 이번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가들이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공연과 협업공연을 펼친다.

이번 축제에는 기타와 퍼커션, 가나 전통악기를 통해 아프리카의 강렬한 음악을 연주하는 3인의 아티스트 킹 아이소바(King Ayisoba),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인 멕시코의 파코 렌테리아(Paco Renteria), 하와이를 기반으로 라틴음

악을 비롯해 재즈와 살사, 락앤롤을 열정적으로 선보일 라틴 음악 뮤지션 손카리베(Son Caribe), 인도 전통악기 ‘타블라’ 연주로 유명한 인도의 요게시 삼시(Yogeshi Samsi), 스페인 안달루시아 집시음악과 플라멩코, 아라비아 음악의 절묘한 조화를 선보이는 이탈리아의 알모라이마(Almoraima) 등이 공연한다.

국내 아티스트인 4인조 인디 락 밴드 ‘혁오’, 한국 전통음악을 추구하며 세계 무대를 공연해온 밴드 ‘김주홍과 노름마치’, 락과 포크에 기반을 둔 ‘아마도 이자람밴드’, 한국에서는 드물게 브라질리안과 아프로큐반 음악을 동시 연

주하는 ‘로스 아미고스’, 개성 있는 디제이 DJ 반달락, 전통 판소리를 시대의 감각으로 살려내는 권승희, 피리 연주자 성시영, 브라질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표현하는 아티스트 라퍼 커션, 대나무를 이용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송경근이 공연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문 아티스트가 아닌 아마추어 밴드도 사전 신청을 통해 킹스타운(King’s Town) 등 10개의 ‘반디밴드’가 공연을 펼친다.

이 외에 월드뮤직 워크숍, 어린이 워크숍·퍼포먼스, 월드뮤직 음반과 서적을 접할 수 있는 뮤직라운지, 플라멩코,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존 등도 마련된다. /전은재기자 e16621@



## 음악 타고 떠나는 캠핑

### 광주박물관 26일 뮤지컬 ‘아빠! 캠핑가요’ 무료 상연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철의 끝자락을 맞아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가족 관람객을 위해 오는 26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캠핑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캠핑뮤지컬 ‘아빠! 캠핑가요’(사진)를 상연한다.

캠핑뮤지컬 ‘아빠! 캠핑가요’는 최근 대중화되고 있는 캠핑의 열기를 그대로 무대에 옮긴 공연이다. 다양한 곤충과 식물, 밤하늘의 별이 화려한 영상과 특수효과를 통해 무대에 재현되고, 무대 위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가 어우러져 실제로 캠핑을 온 듯한 느낌을 주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아빠 캠핑장에서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극중극형식으로 진행되며 인형극, 가면극, 그림자극 등이 어우러져 짜임새로 재미를 더한다. 더불어 맛있는 캠핑 음식과 재미있는 놀이로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6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며, 23일부터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70-7025. /박성천기자 skypark@

### 김봉렬 한예중 총장 연임

#### 임기 2021년 8월까지

순천 출신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현 김봉렬(59·사진) 총장이 제8대 총장으로 다시 임명됐다. 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밝혔다. 임기는 4년. 현 재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인 8월26일부터 2021년 8월25일까지다.



서울대 건축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김 총장은 국가연방관심장장 등을 맡았고 여주 영릉 종합정비계획에도 참여했다. 문화재위원,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고건축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1997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학처장, 기획처장, 미술원 건축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제7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저서인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한국의 건축’ 등으로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농촌 · 어촌 · 산촌 三村에서 만나는 착한 농부

이연복

강례오

매주 금요일 밤 8시 20분

유쾌한 삼촌

착한 농부를 찾아서

CHANNEL